

알바 알토의 교회건축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urch Architecture of Alvar Aalto

정태용* / Chung, Tae-Y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urch architecture by Alvar Aalto. General features of Aalto's architecture are the result of accommodating Modern architecture with regional qualities of Finland. The church would be the best example for understanding his architecture because he designed most of his churches in the prime of life. He established architectural types in his 30s through Viipuri public library and Saynatsälo town hall. He developed these types and applied them to his whole design. His type acts as a principle of configuration of his church architecture rather than a copy of form and shows the characteristics in the field of building layout, dynamic space and the effective use of light. Therefore, Aalto's church architecture can be recognized as the representative of Modern Finnish architecture in that they developed the meaning of their specific context including site, region and cultural tradition without losing the concept and technology of Modern architecture.

키워드 : 알바 알토, 교회건축, 역동적 공간, 빛의 효과, 유형학적 접근

Keywords : Alvar Aalto, Church Architecture, Dynamic space, Effective use of light, Typological approach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핀란드의 건축가 알바 알토는 근대건축의 대표적 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업은 과거 유산의 상속을 거부하거나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문화와 역사적 양식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것이었다. 알토가 1949년부터 10년간 수행한 작업은 전체 작업량의 1/3을 차지하며 독창성에서도 최고였으므로 황금시대¹⁾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데 알토의 교회건축은 대부분 바로 이 시기 즉 완숙기에 설계된 것으로서 작업 모두가 그의 건축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항을 배경으로 알토 교회건축의 변천과정 및 그 내용을 통하여 알토 교회건축의 특성 파악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로는 전후 맥락의 이해를 통한 특정 건축가의 성향을 살펴보고 특정 건축 유형을 통하여 이러한 성향의 구체적 결과물을 분석함으로써 그 건축 특성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는 세계 건축 흐름 속에서 독자성을 확보해야 하는 우리의 건축 현실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연구 대상 건물의 건축 특성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로 진행한다.

우선 대상 건물 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생성시킨 제반 조건을 상호 관련 하에 고찰한다. 따라서 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를 만들어내게 한 문화적, 물리적 배경에 대한 연구를 중시한다. 두 번째로 대상 건물의 개별적이고 단편적 사실보다는 그 배후에 위치하는 원리적이고 전체적이며 구조적 사실을 특성 이해를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 이는 자신의 건축 어휘와 문법체계가 상대적으로 분명한 알토의 건축을 분석하는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상 건축물 이전의 작업에서 받은 영향 및 이후 작업에 끼친 영향을 고려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문헌 조사와 도면 등에 의해 교회건축과 관련된 건축가의 선행 작업을 분석하고 교회 건축 전체를 대상으로 그 전개과정 및 내용을 정리한다. 또한 구체적인 건물을 대상으로 형태 및 공간구성에 나타난 건축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리를 찾아봄으로써, 교회 건축에 대한 알토의 생각이

1) Kiyoshi Higuchi, Alvar Aalto-His Words and Architecture, A+U 8304, p.52 1950년 이후 독일 브레멘의 고층 아파트(1958), 이탈리아 볼로냐의 교회(1966), 또 이란에는 미술관(1970) 등 세계 각지에 계획되거나 건립되었다.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공학박사

무엇이었으며 그 구체적 실현방법을 세부 내용에 따라 고찰하도록 한다.

2. 알토 교회건축의 배경

2.1. 핀란드 건축의 성향

(1) 핀란드 건축의 역사적 배경

스웨덴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핀란드는 그 지리적 위치로 말미암아 13세기부터 스웨덴의 속국이었으며 19세기 100년 동안에는 러시아의 지배 하에 있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와중에 러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다시 찾을 수 있었지만 2차대전 무렵까지 구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내정간섭을 받았다. 그 결과 핀란드의 문화생활 전반에는 이들 두 나라의 영향이 배어있는데 지속된 스웨덴의 지배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로서의 보편적 경향을 핀란드에 심어놓았고, 그 후 러시아와 아시아적 특징들은 스칸디나비아의 다른 국가와는 구별되는 핀란드만의 특수성을 결정짓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장기간의 열강 간섭에도 불구하고 핀란드가 고유의 언어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칼레발라(Kalevala)²⁾와 같은 민족적 서사시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의 강한 민족애와 독립을 향한 강한 열망 때문이었고 이러한 성향은 핀란드 건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1809년 핀란드가 스웨덴에서 벗어나 러시아의 지배 하에 들어가자 헬싱키는 러시아에서 유럽과 가장 가까운 중요 관문으로 변모했다. 러시아는 당시 주류 양식이던 신고전주의를 근간으로 도시 건설에 착수했는데 러시아는 이전 핀란드의 수도 투르쿠가 지리적, 문화적으로 스웨덴과 가까운 점을 고려하여 1812년에 헬싱키를 새로운 수도로 선정했다.³⁾ 헬싱키에 신고전주의를 도입한 사람은 독일인 건축가 엔겔(C.L. Engel)로서 그는 베를린 건축 아카데미에서 신고전주의 양식을 배우고 페테르부르크에서 경력을 쌓은 뒤 1816년 헬싱키로 초빙되었다. 격자 모양의 도시계획을 입안하였고, 대성당(1830-1852)을 완성했으며 정부청사, 대학, 병원, 시청사 등 약 30여 개의 주요 공공건물을 지어 도시 건설에 크게 기여했다.⁴⁾

19세기 말에는 신고전주의에 반대한 민족적 낭만주의(National Romanticism) 건축운동이 나타났는데 도시 내의 공공건물을 화강암 덩어리 같은 구축물로 만들어 하얀 스테코의 신고전주의 시가지에 일부러 투박하고 거친 건축으로 맞섰다.⁵⁾

2) 핀란드 민족서사시. 이교시대(異敎時代)부터 그리스도교 시대에 걸쳐 핀란드 각지에 전승되고 있는 전설·구비(口碑)·가요 등을 집대성, 이틀 한 편의 서사시로 만든 것으로 50장(章), 2만 2795행으로 되어 있다.

3) 伊藤大介, 알토 히란드, 김인산 역, 알바알토, 르네상스, 2005, p.115

4) 伊藤大介, 알토 히란드, 김인산 역, 알바알토, 르네상스, 2005, p.116

5) 이러한 건축의 전형적인 예로 게셀리우스, 린드그렌, 사리넨의 공동 설계 사무소가 설계한 일련의 공공 건축물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국립박물관은 1901년 설계 경기에 당선되어 1910년에 완공되었

20세기 초 민족적 낭만주의 건축이 쇠퇴하면서, 핀란드의 1920년대 건축은 북유럽 고전주의 시대로 규정된다. 사회적으로는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고 내전을 끝낸 후 본격적으로 국가 건설에 착수한 시기였다. 민족적 낭만주의가 자랑하던 웅대한 꿈의 표현보다는 현실적인 건설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건축에 더 요구되었는데 엘리엘 사리넨이 이 시기 헬싱키 건축 전개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⁶⁾

(2) 핀란드 근대 건축의 전개

일반적으로 북유럽의 기능주의 건축⁷⁾은 1930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박람회장의 건축에 의해 확립되었다고 평가되는데, 이때 건축을 담당한 건축가가 바로 스웨덴 출신의 군나 아스폴룬트(1885-1940)였다. 아스폴룬트는 알토를 비롯한 핀란드 건축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이들의 건축은 중앙 유럽의 근대 건축가들이 주장한 이론적이며 추상적이고 교조적인 '기능주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능적'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지닌다. 이러한 건축 특성은 북유럽의 풍토와 문화에서 비롯된 자신들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인식을 토대로 도출된 결론이었다. 이러한 발상이 유럽의 각국과는 확연히 다른 형태로 자연스럽게 전개된 것이 바로 1930년대의 핀란드 건축이다.⁸⁾ 이 당시의 대표적인 핀란드 건축가는 알바 알토와 에릭 브리그만(Erik Bryggman)으로서 이들은 빛과 건강을 기초로 한 자연스런 생활상을 추구하여 근대건축의 교조적 원리와는 차이를 나타냈다.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그 복구 작업으로 인하여 1940년대에는 주목할 만한 건축 작업은 없었지만 대신 많은 건축가들이 도시계획 작업에 참여했다.

1950년대에는 이미 세계적인 건축가로 대두한 알토 외에 아올리스 볼름스테드와 빌호 레벤이 활약한 시기로서 핀란드 건축의 또 한번의 발전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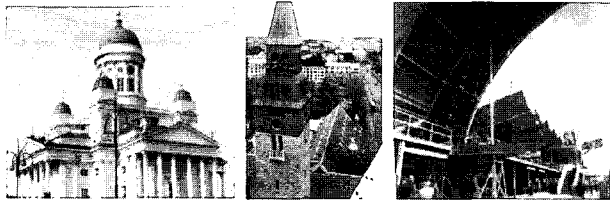
이러한 전개과정을 통해 핀란드의 근대 건축은 자신들만의 건축 특성을 외부 세계에 나타내게 되었는데, 전통적인 건축 개념에 대한 혁신적인 해석, 외부 건축에 대한 개방, 그리고 핀란드의 자연조건과 지역적 조건에 따른 특성 등을 감안한 결과였으며 알토가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 화강암의 중후한 외벽과 중세 교회풍의 첨탑이 인상적인 국립박물관은 손투의 탐페레 대성당과 함께 민족적 낭만주의 건축의 대표 작품이다.

6) 개별적 건축물의 설계뿐만 아니라 헬싱키 도시기본계획(1915년), 중앙역 주변의 도심 상업공간 활성화 계획, 대규모 교외주택지 계획 등의 입안에도 참여했다. 사리넨은 자신의 양식 자체를 스스로 바꿔 나갔는데 유럽을 자주 여행하며 당시의 최신 동향을 접하고 철근 콘크리트 기술을 수용했다. 伊藤大介, 알토 히란드, 김인산 역, 알바알토, 르네상스, 2005, p.61

7) 물론, 1900년 파리 세계박람회에서 아르마스 린드그렌과 헤르만 게셀리우스, 엘리엘 사리넨 등 세 명의 핀란드 작가가 디자인한 핀란드 전시관이 유럽인의 관심을 대대적으로 불러일으킨 이래 1920년대와 30년대에는 건축의 기능적인 역할을 많이 고려한 작업이 나타났지만 본격적인 출발은 아스폴룬트에 의해서이다.

8) 伊藤大介, 알토 히란드, 김인산 역, 알바알토, 르네상스, 2005, p.23



<그림 1> 헬싱키 대성당(영결, 신고전주의), 국립박물관(게셀리우스, 민족적 낭만주의), 스톡홀름 박람회(아스플룬트, 기능주의)

2.2. 알토의 건축성향

(1) 일반적 성향

알토는 1898년 쿠오르탈에서 태어나 1976년 작고할 때까지 54년간 300여개의 건축 작품을 남겼다. 건축적 영감의 근원으로서 지역적이고 자연적인 형태에 대한 알토의 관심은 1900년대 초기 핀란드에서 유행했던 민족적 낭만주의에 크게 힘입은 것⁹⁾이며 스웨덴의 건축가 아스플룬트의 영향도 지대했다.

알토는 핀란드의 전통적인 재료와 자연적인 감성을 그의 건축 세계에 잘 나타냄으로써 지역적이며 민족적인 특징을 표현한 건축가였다. 국제주의 양식을 수용하면서도 민족적 성향이 강했던 알토는 이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자신의 건축특성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알토의 디자인에서 핀란드라는 지역적 특성은 가장 중심에 위치한다. 알토가 근대 건축가로서 기능주의에 충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아스플룬트의 전통중시 사고와 핀란드의 환경에 대한 고려가 모더니즘의 형태적 보편성으로부터 탈피한 자유롭고 역동적인 형태적 특성을 낳게 했다. 그 결과 모든 근대 건축가 중에서 알토는 기후, 대지, 그리고 그 무엇보다 재료에 대응하는 지역주의 건축의 대표자로 간주되며, 문체해결의 선례로서의 지역적인 형태를 철저히 연구함으로써 이들 간의 적절한 관계를 설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¹⁰⁾

알토는 1928년에서 1956년까지 CIAM회원으로 활동했으며 핀란드 학술원 회원과 학술원 원장(1963-68)을 지냈다. 1957년 영국 RIBA(왕립건축가협회) 금메달, 1963년 AIA(미국 건축가협회) 금메달을 수상했다.

(2) 시기별 성향 1기(1923-1939): 발전기

1923년 위베스켈레에서 사무실을 열면서 시작된 알토의 초기 작품 성향은 당시 스칸디나비아 지역 설계의 주요 흐름이었던 민족적 낭만주의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으며 특히 아스플룬트의 영향이 많이 드러난다.

1927년 및 1928년을 통해 알토는 핀란드에서 가장 진보적인 건축가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는 투룬 사노마트 빌딩과 파이미오 결핵 요양소¹¹⁾, 비푸리 시립 도서관을 설계한다. 결핵 요양소와 비푸리

시립 도서관은 설계경기에서 당선한 것으로, 3가지 건물 모두는 기능적이고 솔직한 설계에 역점을 둔 작품이며 역사적 양식을 참고하지 않은 것들로서 이전의 단순화된 고전양식을 뛰어넘어 평활한 하얀 표면, 띠창(ribbon window), 편평한 지붕, 테라스, 발코니를 사용한 바우하우스 교사(1925-26)와 다소 비슷하다.

비푸리 시립도서관은 이후 알토 작업의 원형으로 작용할 만큼 중요한 건물로서 그로피우스 등이 이끌던 유럽 근대건축의 기본형을 따르지만 자신만의 양식을 가꿔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널찍한 내부 복합공간의 배치와 도서관 부속 강당에서 사용한 자유 곡면의 음향 반사 천장이 특히 유명하다. 1935년에 이미 알토는 기능주의를 표방하는 당대 건축의 교조적 건축원리와 형태를 비판하였는데, 이는 이른바 국제주의 양식이 반인간주의의 성향을 보였기 때문이었다.¹²⁾ 대신 알토는 근대건축과 유기적 접근, 또는 지역적 해석을 연결시킨 건축을 주장하였다.¹³⁾ 특히 1938년 뉴욕 박람회 핀란드 전시관에서 물결치는 듯한 곡면을 경사지게 만들어 공간의 역동성을 보여줌으로써 알토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근대 건축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림 2> 파이미오 요양소, 비푸리 도서관, 뉴욕 박람회 핀란드 전시관

(3) 시기별 성향 2기(1939-1959): 원숙기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주요 작업은 여러 건물을 배치하는 단지 계획과 관련되어 있었다. 대표적인 2가지로 오타니에미(1949-55)와 위베스켈레(1952-57)에 있는 단과대학 종합계획을 들 수 있다. 그는 수닐라 셀룰로오스 공장(1936-39, 확장 1951-54)과 같은 공장건물을 설계할 때 이러한 단지 계획을 처음 시작했는데, 근로자 숙소를 갖춘 이 공장은 종합적인 건물 단지계획의 성공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시기에 비푸리 시립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이후 작업에 큰

11)이 건물의 디자인은 '새로운 내용이 없다면 새로운 형태를 발명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는 전제하에 의사와 심리학자들에게 상담을 하고, 환자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는 등 기능주의에 충실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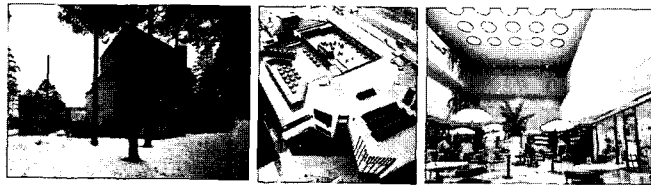
12)알토는 근대건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근대 건축의 과거 잘못된 점은 합리주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합리주의가 충분히 깊이 정착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근대 건축의 단계는 합리주의 정신과 싸우려는 대신에 합리주의 방법론들을 기계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인물과 심리분야에까지 투영해 보려는 시도이다. 물론 의심할 여지없이 근대건축의 현 단계는 인물과 심리분야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것이다."

13)비푸리 시립도서관 이후 그는 계속하여 층 높이를 다양하게 조절하고 천연 재료, 천창(天窓) 및 자유로운 곡면 형태를 구사했다.

9)Ford, The Details of modern Architecture, MIT press, 1996, p.119

10)Ford, The Details of modern Architecture, MIT press, 1996, p.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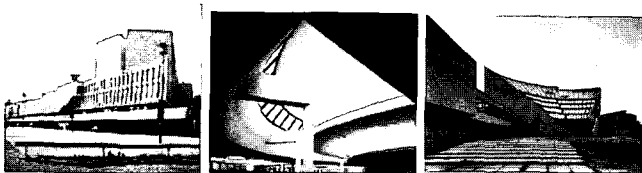
영향을 미치는 세위네찰로 타운 홀(1950-1952)이 완공된다. 이 건물의 단순한 형태는 붉은 벽돌, 나무, 구리 등 모두가 핀란드의 전통적인 재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특히 건물군의 배치방식과 내부 중정의 역할 등을 통하여 알토는 시간·장소·민족의 본질을 완성도 높게 표현하였다. 이후 비푸리 시립도서관 및 세위네찰로 타운 홀을 기본 유형으로 하는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라우타탈로 오피스, 핀란드 국민연금협회, 유바스쿨라 교육대학, 핀란드 공대본관, 푸오크세니스카 교회, 빌라 카레, 볼프스부르크 문화회관, 볼프스부르크 교회 등 알토의 작업을 대표하는 많은 작품이 이 시기에 이루어진다. 또한 이 시기의 작업은 양적으로 확장될 뿐만 아니라 핀란드를 벗어나 지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다. 브레멘 고층 아파트(1958),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1959-1962)를 포함하는 일련의 독일에서의 작업과 및 미국에서의 작업을 들 수 있다.



<그림 3> 세위네찰로 타운 홀,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 라우타탈로 빌딩

(4) 시기별 성향 제 3기(1960-1976): 말기

그의 후기 설계는 다소 과도할 만큼 많은 복잡성과 역동성을 보여준다. 특히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의 작품은 밀집되고 중첩된 볼륨과 바깥으로 벌어진 대각선 형상의 특징을 갖는다. 주 공간과 부속 공간의 분리는 이후 일련의 도서관 작업 즉 세이나요키 도서관(1965), 로바니에미 도서관(1968), 마운트 엔젤 베네딕트 칼리지 도서관(1970)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는 다른 건축유형인 노이에파르 고층 아파트(1962) 및 본고에서 다루는 교회건축에도 나타나는 원리이다. 이렇듯 20세기 스칸디나비아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알토의 작품은 근대건축운동 초기에 유행했던 딱딱한 기하학적 설계를 벗어나 비정형성과 개인적 표현을 강조한 첫번째 작품에 속한다. 그의 양식은 낭만적이며 지역성이 강하고 대지의 특성을 인식하여 복잡한 형태와 다양한 재료를 사용했다. 특히 건물의 모든 상세부에 주의를 기울인 점은 알토 건축의 전 시기를 관통하는 특징이다.



<그림 4> 핀란드아홀, 베네딕트 칼리지 도서관 및 헬싱키 공대

<표 1> 알토의 시기별 건축성향

연도	주요 건축 성향	주요 작품
1기 1923-1927 1928-1934 1935-1939	민족적 낭만주의, 아스플룬트의 영향 기능주의 건축 수용, 건축원형의 탐색 건축원형의 전개	유바스쿨라 근로자 회관, 극장, 무리에 교회, 사노마트사옥, 파야미오 새너토리엄, 비푸리 도서관 레바르 미술관, 파리 박람회 핀란드 관, 뉴욕 박람회 핀란드 관, 빌라 마이레아
2기 1939-1949 1950-1959	전후 도시계획 참여 대규모 작업, 복합문화시설, 해외작업 중정 평면형, 부채꼴의 자유로운 형태 공간의 분할과 연결 방식 적용	베이커 하우스 세위네찰로 타운홀, 라우타탈로 오피스, 핀란드 국민연금협회, 유바스쿨라 교육대학, 핀란드 공대본관, 푸오크세니스카 교회, 빌라 카레, 볼프스부르크 문화회관, 볼프스부르크 교회
3기 1960-1969 1970-1976	건축 유형의 전개 건축유형의 전개, 쇠퇴기	세이나요키 문화센터, 로바니에미 도서관, 마운트엔젤 베네딕트 칼리지 도서관 핀란드아 홀, 라울라 교회, 라흐티 교회

3. 알토 교회 건축의 특성

3.1. 유형학적 접근방식

(1) 알토의 유형학적 접근방식

알토는 설계 디자인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여 최초의 이미지를 굳히고 마침내 구체적인 형태를 얻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그는 추상적인 원리를 중시하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경험적인 디자이너였다.¹⁴⁾ 알토는 하나의 건물을 상황의 조건에 따라 변형시키지만, 과거의 흔적을 없애지 않고 유지시킴으로써 복합성과 동질성을 유지시킨다.¹⁵⁾ 이렇듯 건물 유형에 따라 유사형태를 보여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에 관계없이 이전 수행한 작업을 상당 부분 참조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은 프로젝트의 기능 및 조건 그리고 환경상의 영향에 따라 변화를 갖는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원리들은 다시 이후 작업에 반영되는데 이는 알토 자신이 밝힌 바대로 ‘오래된 것들은 다시 태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한번 존재한 그 어느 것은 항상 새로운 형태로 다시 등장한다.’¹⁶⁾는 것으로 건축에 대한 그의 유형학적 접근방식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유형학적 접근방식은 역사와 지역성을 무시한 근대 건축가들의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대비되는 것으로 알토 건축의 특성은 바로 이점에 근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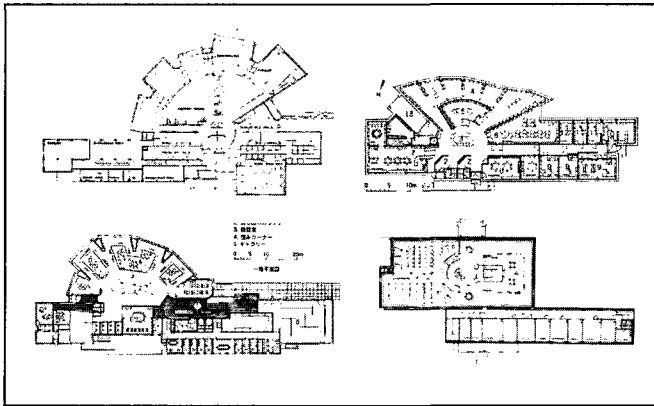
이러한 이유로 알토는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에 이르는 동안 근대건축을 실험하고 나서 모더니스트들의 비전인 표준화, 기하학적 형태, 기계적 마무리 그리고 강철이나 콘크리트에 의한 미니멀 형태를 통한 재료의 효율성 원칙을 버렸다.¹⁷⁾ 대신 자신의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건축유형과 원리를

14) Pietila, Reima, A "Gestalt" Building, A+U 8304, p.8

15) Akira Ozawa, Architect's Morphology of Alvar Aalto, A+U 8304, p.191

16) Alvar Aalto, 'Painters and Masons' in Jousimies 1921, Porphyrios, D, Sources of Modern Eclectic Studies on Alvar Aalto., St. Martin Press, 1982, p.38 에서 재인용

지속적으로 사용했으며 빛, 비물질화, 루버가 있는 벽 및 천공된 스크린 및 장인적 속성의 디테일들이 알토 건축의 주요 장치¹⁸⁾로 남게 되었다. 예를 들어 초기 작업이었던 비푸리 도서관(1935)은 열람실과 서고로 이루어지는 주 공간과 기타 부속실을 명확히 분리하고 빛의 효과를 극대화시킨 프로젝트인데 ‘주공간과 부속공간의 분리’라는 측면에서 알토 건축의 원형으로 작용한다.



<그림 5> 도서관 건축유형의 설정과 적용사례: 시계방향으로 베네딕트 대학 도서관, 세이냐요키 도서관, 로바니아미 도서관, 비푸리 도서관 평면

(2) 교회건축에서의 유형학적 접근

도서관 건축에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알토는 교회 건축에서도 유형학적 접근방식을 사용했다. 이러한 방법은 그가 주로 교회를 설계하던 시기인 1950년대 이전부터 사용되었다. 1925년 그의 초기 뮐리 교회 계획안은 명확히 바실리카 형식의 교회와 종탑의 유형에 근거한 것이다.¹⁹⁾

주목해야할 사항은 알토가 본격적으로 교회 건축에 참여하는 1950년대에도 같은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알토의 1952년 세이냐요키 교회의 평면 구성은 교회 전통의 내이브-아일-나텍스-아트리움의 과정을 참조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마르티 팔라넨의 파르카우스 교회 현상안과 같이 그러한 전통에 대한 당대의 채택방법도 받아들인 것이라 할 수 있다.²⁰⁾ 결국 알토의 교회 건축은 20-30년대 북부 유럽 건축가들의 영향²¹⁾을 받은 것으로서 특히 본당(바실리카)과 종탑에 대한 불륨적 분절과 지붕선의 고려, 버트레스의 참조, 수직 창문과 기둥 사용 등은 친숙한 교회 유형을 현대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지역 건축가들의 작업을 참고로 이루어진 것

17)Ford, The Details of modern Architecture, MIT press, 1996, p.117
 18)Ford, The Details of modern Architecture, MIT press, 1996, p.119
 19)Porphyrios, D, Sources of Modern Eclecticism Studies on Alvar Aalto., St. Martin Press, 1982, p.36
 20)Porphyrios, D, Sources of Modern Eclecticism Studies on Alvar Aalto., St. Martin Press, 1982, p.38
 21)Porphyrios, D, Sources of Modern Eclecticism Studies on Alvar Aalto., St. Martin Press, 1982, p.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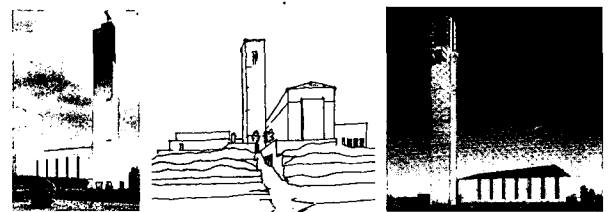
들이다.²²⁾

유사한 방법으로 알토의 볼프스부르크 교회(1959)의 단면상의 천장 윤곽은 명확히 고딕 성당의 볼트에 대한 암시이며, 세카에타의 헬싱키 교회 현상안, 카논코스키 교회(1933) 및 나킬라 교회(1933)의 참조라 할 수 있다.

1920년대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설계한 무라메 교회(1925)와 1950년대 초기 2개의 교회 계획안(말름 체플, 링비 체플)의 장방형 평면을 제외하고 알토는 삼각형에 가까운 사다리꼴 형태의 평면을 주로 사용하고 부속공간의 배치에 있어서 ‘병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그의 도서관 건축이나 공연장 건축이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건축에서도 역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알토가 교회 건축에 대한 하나의 원형 혹은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발전 혹은 조건에 맞게 변화시켰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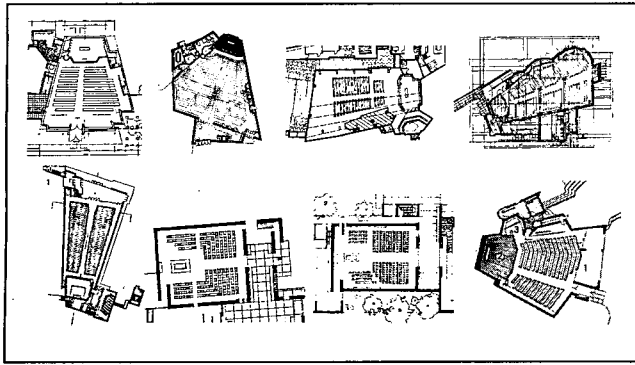
<표 2> 알바 알토 교회 건축의 시기별 특성

건물명	설계준기	장소	건축/내부공간 특성	구조재료
뮐리 교회 (계획안)	1925 미실현	뮐리 핀란드	현상설계 지원안 종탑과 진입로의 강조	미상
무라메 교회	1926 1929	무라메 핀란드	신고전주의 외관 목구조의 노출, 간결한 공간구성	조적조 목조볼트
말름 체플 (계획안)	1950 미실현	헬싱키 핀란드	3개의 예배실을 중앙홀 및 선형 복도로 연결, 천장의 강조	RC 조 조적조
링비 체플 (계획안)	1952 미실현	링비 덴마크	2개의 예배실과 벽으로 둘러싼 외부공간에 의한 구성, 고측창 및 천장 강조	RC 조 조적조
세이냐요키 교회	1952 1960	세이냐요키 핀란드	좁고 긴 삼각형태의 평면, 곡면지붕 독립 종탑의 강조	RC 조 조적조
프옥세니스 카 교회	1956 1959	이마트라 핀란드	3개로 분할가능한 평면, 단면 및 입면상 곡면사용, 독립종탑 강조	RC 조 조적조
볼프스부르크 교구센터	1959 1962	볼프스부르크 독일	내부중정을 갖는 배치, 곡면 공간 독립종탑 강조, 고측창 및 측창	RC 조 조적조
데트메로데 교구센터	1963 1968	데트메로데 독일	L 자형 평면구성, 종탑의 과장 원형목재관의 반사판	RC 조 조적조
리올라 교구센터	1966 1937	볼로냐 이태리	연속된 4분 볼트 지붕 및 고측창 독립종탑 강조, 강력한 구조미 표현	RC 조 외벽석조
라호티 교회	1970 1937	라호티 핀란드	삼각형태 예배실에 부속실 부가형태 슬랩 지붕, 건물 종탑일체식	RC 조 조적조



<그림 6> 좌측부터 후트넨 설계의 나킬라 교회(1936-37), 알토의 뮐리 교회 계획안(1925), 세이냐요키 교회(1952) 간의 유사성

22) 예를 들어 조셉 고카르의 1923년 프라하 교회, 마야 타이바스의 1930년 헬싱키 교회 현상안, P.E. 블롬스테트의 1933년 카논코스키 교회, 에르키 후트넨의 1933년 나킬라 교회 등이 알토의 1952년 세이냐요키 교회의 선례로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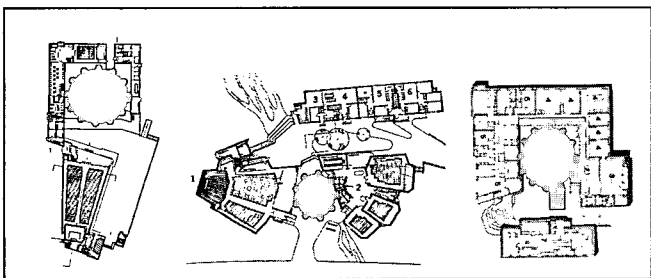
<그림 7> 알토의 교회 평면: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데트메로데, 라흐티, 리올라, 푸오세니스카, 세이나요키, 링비, 말름, 폴프스부르크 교회의 평면

32. 배치 및 평면상의 특성²³⁾

(1) 배치상의 특성

실제로 구현된 6개의 교회 중 단일 건물 중심의 라흐티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클러스터 방식을 취하고 있다. 클러스터 방식은 ‘口’자 형식을 띠는 세이나요키 교회, ‘L’자 형의 데트메로데 교회, 외부 중정을 둘러싸는 방식의 볼프스부르크 교회, 종탑과 계단식의 마당으로 구획되는 리올라 교회 등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이미 선행 작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세어나찰로 타운홀(‘口’자형) 알토 아틀리에(‘L’자형, 계단식 마당), 마이레아 주택(마당의 구획방법) 등이 그 전례로서 알토가 각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이전의 작업을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어떤 형식이던 주출입구 앞에 외부공간을 갖는데 이는 많은 수의 출입을 해결하는 동시에 내부기능의 확장을 꾀하는 등 기능상의 실질적 문제의 해결과 전통적인 배치유형을 적용한 결과이다. 또한 교회를 외부공간보다 높은 위치에 두어 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건물에 접근할 때 각기 다른 광경을 제공한다. 이때 종탑은 배치 상 영역의 표시의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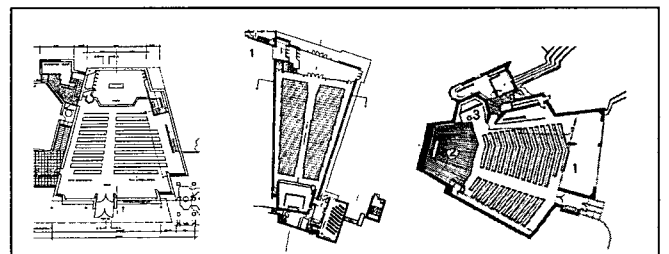
<그림 8> 세이나요키, 볼프스부르크 교회, 세어나찰로 타운홀 외부공간

23)교회건축에 대한 알토의 명성에 비해 실제 계획된 교회 수는 10개 미만이다. 이 중 1920대 계획된 필드 교회(1925, 현상설계안)과 신고전주의 양식을 갖고 있는 무라메 교회(1926)는 이후 교회계획에 대한 연계성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고 역시 계획안에 머물렀으며 장의장 시설의 부속건물로서 계획된 말름 교회(1950)와 링비 교회(1952)를 제외하면 실제 건설된 것은 6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 교회의 숫자로 인하여 알토가 계획한 건축의 특성을 일반화하기는 무리가 있으나 이미 3.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알토의 건축에 대한 유형학적 접근방식을 고려할 경우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2) 평면상의 간결성

알토의 교회 평면이 갖는 특징 중의 하나는 간결성이다. 이러한 간결성의 근원으로 들 수 있는 첫 번째는 전통적인 북부 유럽 교회 평면의 영향이다. 즉 양식에 관계없이 북부유럽의 교회는 대체로 요철이 없는 긴 직사각형의 간결한 평면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평면 특성은 북부 유럽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루터파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루터파 교회 공간에서는 미적인 성찬대, 목사의 설교단 및 간결한 형태의 십자가와 같이 의미의 기능을 갖는 요소가 필수적이며 장식보다 기능을 중시한다.²⁴⁾ 루터파 교회에서 의식은 교회 건축에 있어서 기본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의식이 주로 일어나는 내부가 중시된다. 따라서 루터파 교회의 중심공간은 전형적으로 내부 공간이다. 외관은 세속의 일부로서 어떠한 엄격한 형태적 원칙을 갖고 있지 않다.

알토는 이러한 루터파의 특성을 건축에 반영했는데, 가변 간막이를 이용하여 평면을 3개로 분할하고 외벽을 곡면으로 처리한 푸오세니스카 교회를 제외하고는 단부가 잘린 삼각형의 평면형태를 사용하여 알토 특유의 곡면을 평면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푸오세니스카 교회도 이등변 사다리꼴 형태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2가지의 장점을 갖는다. 우선 설교단으로의 방향성을 부여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좌석 배치가 가능하며 음향상의 울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9> 데트메로데, 세이나요키, 볼프스부르크 교회의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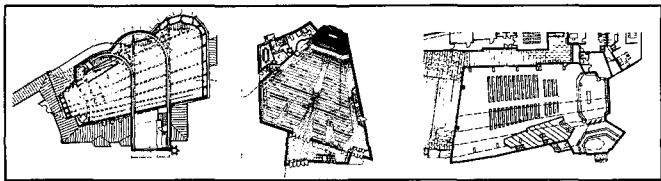
(3) 비대칭적 구성

비록 평면은 간결하고 단순하지만 그 구성자체는 비대칭적이며 다양한 양상을 보여 주는데 이때 설교단 쪽으로의 강한 방향성과 다양한 공간감의 제공은 알토 교회 건축의 또 다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대칭 형상을 깨뜨리는 방법은 주공간에서는 평행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상기한대로 측면에 부속 공간을 두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입구 홀의 크기와 형상을 달리하여 전체 평면에 변화를 주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좌석의 배치도 통로의 위치를 중앙에 두지 않는 방법으로 대칭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전적으로 기능적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루터파 교회의 특성상 설교가 중앙의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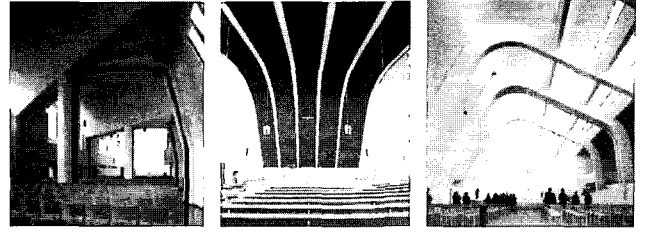
24) Pietila, Reima, A "Gestalt" Building, A+U 8304, p.9

단이 아닌 교인석에서 볼 때 좌측의 설교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등이 왼쪽으로 치우치며 이는 좌석 배치에 있어서 비대칭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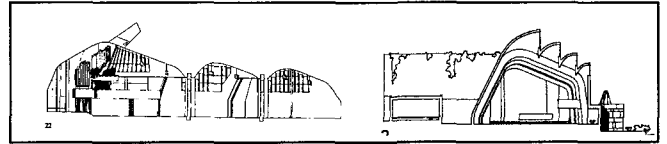
예를 들어 푸오세니스카 교회는 3부분으로 분할하고 이동벽을 수납해야하는 기능상의 이유로 비대칭적 형상이 만들어졌고, 라흐티 교회에서는 입구 홀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분당 면과 엇갈리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리올라 교회 평면의 비대칭성은 내부 공간의 강한 역동성에 대응하는 방법의 일환이다.



<그림 10> 푸오세니스카, 라흐티, 리올라 교회 평면



<그림 11> 푸오세니스카, 볼프스부르크, 리올라 교회 공간의 역동성



<그림 12> 푸오세니스카 교회 및 리올라 교회의 단면도

3.3. 공간상의 특성

(1) 공간의 역동성

공간의 역동성은 알토 건축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교회 건축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구성방식에서는 다소간의 차이는 보인다. 도서관이나 문화공연센터처럼 알토는 평면상의 곡면에 의해 공간에 역동성을 부여했다. 단면상에서는 수평 천정을 유지하고 높이 차에 의한 변화를 주었을 뿐이다. 그런데 교회 건축에서는 평면뿐만 아니라 단면에 의한 공간의 역동성을 강조한다. 평면에서는 주로 긴 이등변 삼각형 모양에서 공간에 방향성과 역동성을 부여했다. 여기에 단면의 조정에 의해 이러한 방향성과 역동성을 극대화한다.

이러한 역동성은 천정면을 바다까지 곡면으로 처리하거나(볼프스부르크 교회, 푸오세니스카 교회, 세이나요키 교회), 천정면을 경사진 몇 개의 면으로 분할한 경우(라흐티 교회), 각기 다른 단면 형상을 보여주는 경우(푸오세니스카 교회) 또는 부정형의 연속된 구조의 노출을 통한 역동성의 부여(리올라 교회)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푸오세니스카 교회는 수직적 측면의 곡면과 수평적 곡면이 상호 교차됨으로써 공간의 역동성과 아울러 다양한 공간감을 제공한다. 교회의 공간적인 실체가 제단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여서 마침내 제단에서 천장과 벽의 구별 없이 하나가 되어 처리되고 있다. 이것은 알토의 루터파적인 견해와 근본적인 신조가 표현된 것으로 만물질인 공간과 빛을 건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²⁵⁾ 그렇지만 평면의 비대칭과 단면상의 곡면 사용으로 나타나는 공간의 역동성은 음의 반사와 확산을 통한 음향상의 이점이라는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결과이기도 하다.²⁶⁾

(2) 빛에 의한 공간감의 극대화

알토는 실내로 빛을 효과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빛에 대한 집착은 북방의 풍토 속에서 생활하는 건축가가 건축공간에 무엇을 가져오기 위해 연구를 거듭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²⁷⁾ 교회 건축에 있어서 빛의 역할은 자연광을 통한 조도의 확보 외에 설교단 측에 빛을 이용하여 종교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건축가 군나 베키투스는 알토의 프오세니스카 교회에서의 빛의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건물에 접근하면 형식주의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모든 것이 단지 기능적인 필요성에 따르고 있을 뿐이다. 창문은 빛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위치에 있고, 필요한 조도에 따라 모양과 크기가 결정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리판의 지붕을 자유로이 분절하여 천장을 내면서 적절한 빛을 얻게 했다.”²⁸⁾

자연광의 활용은 알토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으로서 교회건축에서는 우선 북측에 창을 내어 균일한 빛을 유입시킴으로써 내부에 일정한 조도를 제공한다.(푸오세니스카 교회, 볼프스부르크 교회) 설교단에 어떠한 종류의 빛을 제공하는가는 또 다른 빛의 연출에 해당한다. 측고창을 이용하는 경우(푸오세니스카 교회, 세이나요키 교회, 데트메로데 교회), 주출입구 측의 창을 이용하는 경우(볼프스부르크 교회, 라흐티 교회)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루버 및 창의 조정을 통해 건축가가 의도하는 빛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 종교적인 공간감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26) 이러한 점에서 알토의 형태 및 공간상의 특성은 실질적 기능문제의 해결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다른 근대 건축가의 기능주의가 교조적이라면 알토의 기능주의는 실질적이라 할 수 있다.

27) 伊藤 大介, 알토 히라노, 김인산 역, 알바알토, 르네상스, 2005, p.15

28) Gunnar Birkets, Aalto's Design Methodology, A+U 8304, p.10

25) Pietila, Reima, A "Gestalt" Building, A+U 8304, p.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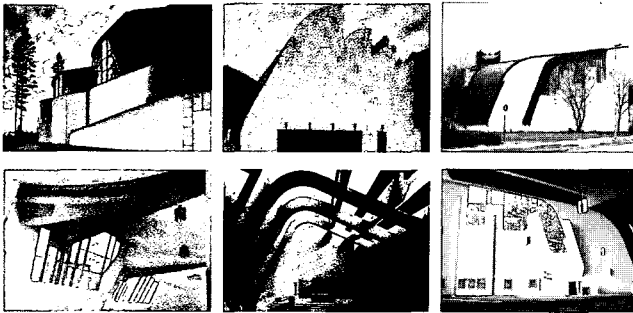


<그림 13> 세이나요키, 푸오세니스카, 라흐티 교회 내부공간과 빛

3.4. 형태 및 재료상의 특성

(1) 기능과 형태의 일치

유사한 구성원리, 건축어휘 및 재료에도 불구하고 알토의 교회는 각각 다른 형태를 보여주는데, 그 기저에는 기능과 형태의 일치라는 실질적 의미의 기능주의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²⁹⁾ 이러한 이유로, 같은 기능중시의 사고라 하더라도 다른 근대 건축가들이 스스로의 건축원리에 의해 형태적인 제약을 받은 반면 알토는 자유로운 형태를 추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푸오세니스카 교회의 특징적인 처음 2개의 곡면은 이동식 벽을 수납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창은 이 벽면위에 생성된다. 반면 단부의 곡면은 고정 벽이므로 고창은 낮게 형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의 기능은 그대로 외부에 표현되며 결과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특한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 벽과 천정의 구분없이 곡면으로 연속되는 볼프스부르크 교회의 내부공간과 북측면의 특이한 개구부, 데트메로데 교회의 인상적인 원형 목조 음향판, 리올라 교회의 역동적 공간구성과 빛의 유입 등은 모두 기능과 형태의 일치를 의도한 노력의 결과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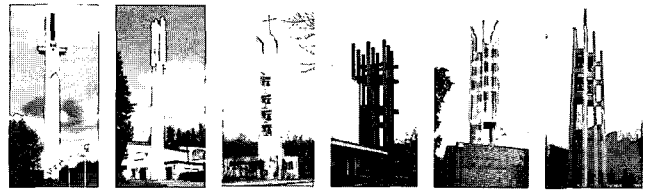
<그림 14> 푸오세니스카, 리올라, 볼프스부르크 교회의 내부와 외관

(2) 형태구성상의 종탑 중심

알토는 교회 본당뿐만 아니라 종탑의 디자인, 크기, 위치 등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였는데, 우선 주목해야 할 사항은 교회 본 건물과 종탑과의 관계이다. 독립, 접합, 부속의 3가지 관계를 갖는 종탑은 각기 건축 내외의 상황을 반영하여 형성된 것

들이다. 즉 배치 상 영역 설정과 단지 내에서 시각적 초점으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말름 채플에는 종탑이 사용되지 않았고, 링비 채플에서는 3개의 수직요소를 합친 형태로 계획되었다. 세이나요키 교구센터에서 독립적 요소로 최초로 계획되었는데 십자가를 연상케하는 형태와 육중한 규모로 전체 건물 군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푸오세니스카 교회의 종탑은 건물 외곽에 인접된 형태로서 육각형의 평면에 6개의 날개를 갖는 형태로 분절되어 좀더 세장한 면모를 보여준다. 볼프스부르크 교회의 종탑은 4개의 종을 수직적으로 중첩시켜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였다. 후기로 가면서 단일 매스의 종탑보다는 기둥 혹은 면을 중첩시킨 종탑이 사용되었다. 데트메로데 교회 종탑은 12개의 세장한 수직요소를 결합하고 상부에서 수평부재로 연결시킨 경우로서 이후 라흐티 교회의 종탑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세이나요키 푸오세니스카 볼프스부르크 데트메로데 라흐티 리올라

<그림 15> 알토 교회 종탑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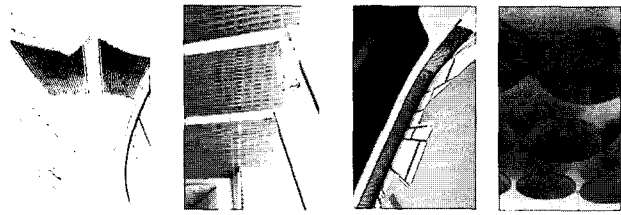
(3) 적절한 재료 사용과 디테일 처리

알토는 건물의 내외부에 있어서 매우 절제된 재료를 사용했는데, 주로 구조체로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했으며, 볼프스부르크 교회의 경우는 붉은 색 조적임에도 백색 칠을 하였다. 콘크리트에 암적색 벽돌을 덧붙인 라흐티 교회와 대리석으로 마감한 데트메로데 교회가 예외적이다. 내부공간은 천정에 목재 널을 사용한 볼프스부르크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백색으로 마감하여 자신이 추구한 공간의 역동성과 빛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역동적 내부 공간으로 인하여 지붕 형상은 매우 불규칙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판을 사용했다.

스칸디나비아 지방의 건축가들이 그러하듯이 알토 역시 디테일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³⁰⁾ 특히 접합부의 디테일 처리가 뛰어나며 그 중에서도 목재 디테일의 처리가 주목할만 한데, 푸오세니스카 교회와 볼프스부르크 교회의 창문 측 환기구의 디테일 처리가 우수하다. 또한 데트메로데 교회에서 사용한 원형의 목재 음향 반사판 역시 목재를 다루는 알토의 장인적 처리 방법을 보여준다.

30) 대부분의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건축가들은 건축이외에 가구, 조명을 포함하는 종합적 의미의 디자이너 전통을 갖고 있다.

29) 1940년 '건물을 인간이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알토는 "지난 10년간 근대 건축은 건설 활동의 경제적인 면에 우선 중점을 두고 주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기능주의적이었다. 그러나 건축은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참으로 기능주의적인 건축은 인간의 관점에서 기능주의적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Kiyoshi Higuchi, Alvar Aalto-His Words and Architecture, A+U 8304, p.31



<그림 16> 푸오세니스카, 볼프스부르크, 데트메로데 교회 디테일

이상 알토의 교회 건축특성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알토 교회건축의 특성

구분	특성 내용
배치 평면	건물 군을 이용한 외부공간 구성과 내부 기능의 확장 공간 의도 예배공간과 부속공간의 병치에 의한 명확한 평면구성원리 사용 루터파의 예배의례를 수용하여 비대칭의 평면 특성 추구
공간 구성	평면의 비대칭과 및 단면상의 변화를 통한 역동적 공간의 추구 음향 등 기능의 충족과 다양한 공간 구성의 합일 추구 천장, 축창 등 다양한 빛의 유입을 통한 공간과 빛의 효과 극대화
형태 재료	특정 원리에 상관없이 기능과 형태가 일치하는 자유로운 형태추구 다양한 종탑의 구성과 배치를 통해 영역성과 독자성 확보 제한된 재료와 색채의 사용을 통한 형태와 공간 표현의 극대화

참고문헌

1. Aalto Museum : Points of Contact, Alvar Aalto Museum, 1994
2. Architectural Monographs 4 Alvar Aalto, St. Martin Press, 1978
3. A+U 8302, Alvar Aalto, 1983
4. Clark & Pause, Precedents in Architecture, VNR, 1985
5. Curtis, W,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Phaidon, 1982
6. Fleigh Karl, Alvar Aalto 1963-1970, Praeger Publishers, 1971
7. Fleigh Karl, Alvar Aalto, Studio paperback, 1991
8. Frampton, Kenneth, Modern Architecture, Thames and Hudson, 1985
9. Ford, The Details of Modern Architecture, MIT press, 1996
10. Miller, W., Scandinavian Architecture during the late 1930s: Asplund and Aalto VS. Functionalism, Reflections, 1990 spring
11. Porphyrrios, D, Sources of Modern Eclecticism Studies on Alvar Aalto, St. Martin Press, 1982
12. The Harvard Architecture Review, Vol. 5, 1986
13. 伊藤 大介, アルトトヒランド, 김인산 옮김, 알바알토, 르네상스, 2005

<접수 : 2006. 6. 30>

4. 결론

이상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알토의 건축이 나타내는 강한 특성은 기존건물 및 지역적 특성의 배경 하에 근대건축의 특성을 수용한 결과로서 하나의 건축유형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타난 것이다.

둘째, 이러한 건축방법이 원숙기에 들어선 50년대 이후의 작업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회건축으로서 여기에는 30년대 말 자신이 정립한 각 건축유형의 특징들을 바탕으로 이후의 작업을 각기 다른 교회 건축의 조건이 반영되어 있다.

셋째, 이러한 반영은 외부 형태나 내부 공간구성의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복사가 아니라 조건에 따른 원리의 적용으로서 결과적으로 기본적 공통원리와 개별적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넷째, 외부공간을 고려한 건물 군의 배치, 구조의 노출과 방향성 강조에 의한 공간의 역동적 구성, 빛을 통한 종교 공간 효과의 극대화는 알토의 교회건축이 공유하는 대표적 특성이다.

결국, 알토의 교회건축은 북유럽이라는 지역성이 강한 지역에서 근대 건축의 개념을 적용하되 지역적 조건과 전통 건축의 원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한 과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세계 건축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그 지역의 특성과 역사적 전통을 수용하여 발전시킨 알토의 건축은 현재 우리의 건축 상황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